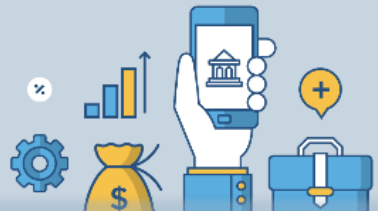


# K-푸드 먹으며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는 외국인



[ Market Analyst ] 이재원 연구원

## KOSPI는 0.7% 상승한 2,744p. 외국인 선물 대규모 순매수에 시총 상위 대형주가 지수 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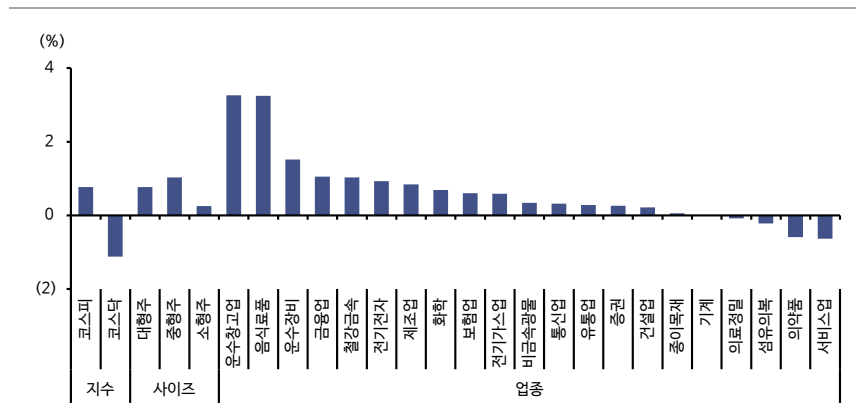
- 미국 주식시장은 Dow 40,000p 돌파. 엔비디아 실적 대기, 연은 위원 매파적 발언 지속되며 혼조세  
 : 금주 엔비디아 실적, 제조업 PMI, FOMC 의사록 발표 등 주요 일정 대기(2P 참고) 속 혼조세  
 : 연은 위원 매파적 발언 지속. 미셸 보우먼 연은 이사 “인플레 추가 진전 없을 시 금리 인상도 가능”
- KOSPI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반도체, 밸류업 동반 상승. 음식료, 해운 등 실적 모멘텀 업종도 강세 지속  
 : 외국인 오전 선물 9,000계약 넘는 대규모 순매수. 시총 상위주(HLB) 탓에 약세인 KOSDAQ과 엇갈림  
 : 반도체, 밸류업(금융, 자동차, 지주) 동반 상승. 수출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실적 모멘텀 업종도 상승  
 : 밸류업) 외국인 지분율 상승 추세. 정책 기대감 지속. 외국인 순매수시 주가 상승하는 흐름. 모멘텀 유지  
 :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에 수급 유입. 전주 약세였던 삼성전자 장중 79,000원 돌파  
 : 음식료) 17일 호실적에 상한가 도달했던 삼양식품 20% 가까운 상승. 수출 모멘텀에 K-푸드 강세 지속  
 : 음식료) 삼양식품 시총 3.8조, 농심 2.5조원. 농심 시총 키맞추기 이뤄지며 반등. 김 업체(씨푸드) 강세  
 : 해운) 증등 지정학적 갈등 수혜 업종에 전일 이란 대통령 헬기 실종. SCFI 상승세 지속되며 업황 호조  
 : 원자재) 구리 가격 역사적 신고가. 철강 업종 및 전선주 등 관련 업종 지속 상승  
 : 외국인 자금 유입에 밸류업, 반도체 등 대형주가 지수 상승 견인하는 흐름. 실적 개선 업종도 주목 필요

## KOSDAQ은 1.1% 하락한 846p. HLB 그룹주 약세 영향 이어지며 2거래일 연속 1%대 하락

- 알테오젠, HLB 2거래일 연속 하한가에 KOSDAQ 시총 3위 등극. MSCI 편입에 외국인 수급 유입 지속  
 : 금주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는 가운데 반도체는 선별적인 주가 흐름. 피에스케이홀딩스 호실적에 강세  
 : 전선, 비철금속(구리값 사상 최고치 경신에 강세), 석유(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에 증등 긴장감 고조 우려)

원/달러 환율은 미국 4월 경기선행지수 하락에도 단기 낙폭 과대 인식에 상승. 2.5원 상승한 1,357.4원  
 아시아 증시 상승. 일본(니케이) +1.5%, 대만(가권) +0.1%, 홍콩(항셱) +0.4%, 중국(상해) +0.1%

업종별 주가 등락률



## 5월 4주차(5월 20일~24일) 주요 이벤트

이벤트	세부 내용	영향
<p>중국 5월 인민은행 LPR 금리결정 (5/20)</p> <p>★★★★☆</p>	<p>최근 중국 제조업, 수출입 모두 호조. 주식시장 수익률 역시 양호. 경기 부양? 신중한 간접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20일 대출우대금리(LPR)가 발표될 예정. LPR은 18개 시중은행이 제시한 평균치를 토대로 발표되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있음</li> <li>지난 2월 인민은행은 부동산 경기 우려에 5년 대출우대금리 3.95%로 25bp 인하. 경기 부양 위한 추가 완화 가능성에도 연준과의 괴리 고려한 인민은행은 신중한 통화정책 예고. 금리 인하 대신 유동성 통한 간접적 미세조정 전망</li> </ul>	<p>최근 '국9조' 등 정부 주도 주식시장 부양 정책 시행. 금리엔 어떻게 반영 될지?</p>
<p>엔비디아 실적발표 (5/22)</p> <p>★★★★★</p>	<p>매크로 변수 완화에 1분기 실적발표 영향력 막강. 엔비디아 실적 예상치 부합 여부 및 가이던스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메이시스(5/21) <b>엔비디아</b>, 타깃(5/22) 폴로랄포르렌(5/24) 실적발표</li> <li>1분기 한미 실적시즌 마무리 국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엔비디아의 실적발표 22일 예정. (한국 시간 23일 오전 6시). 금주 금리 인하 기대 재개되며 주식시장 자금 유입. 특히 애플, 구글, MS 의 연이은 AI 관련기술 발표에 AI 모멘텀 지속. 시장 상승 주도한 반도체 업종의 대장격인 엔비디아의 주식시장 영향력은 막강.</li> <li>4월 TSMC 와 ASML 등 대형 반도체 업체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하향 or 조정에 반도체 업종 동반 약세. 금리 우려 감소에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감 더해지며 반도체 업종 자금 유입 재개 (SK하이닉스, NASDAQ 신고가). 선반영된 주가에 대한 기대 증명하기 위해서 실적 예상치 부합과 함께 가이던스 상향 역시 필요한 상황</li> </ul>	<p>금주 엔비디아 실적에 반도체 업종, KOSPI 지수 향방 갈릴 전망</p>
<p>미국 S&amp;P 글로벌PMI 예비치 (5/23)</p> <p>★★★★☆</p>	<p>4월말 주식시장 반등 원인 중 하나였던 PMI 부진. 부진 지속되어 금리 영향 미칠지 확인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일(한국시간 : 23일 오후 10시45분) S&amp;P글로벌이 발표하는 미국의 5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지수(PMI) 예비치 발표</li> <li>예상치 크게 상회한 3월과 다르게 4월 S&amp;P글로벌 제조업 PMI 49.9로 연내 최저 및 예상치 하회 (예비치 기준). 서비스업 PMI도 50.9로 연내 최저치. 고금리에도 굳건했던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할 수 있을지. 또한 추가적 부진 발표시 금리, 달러 인덱스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 상승 모멘텀이 추가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li> </ul>	<p>경기 둔화 신호 지속은 금리 인하 명분</p>
<p>미국 5월 FOMC 의사록 (5/23)</p> <p>★★★★☆</p>	<p>연준 위원들의 경기 진단 내용은? 회의 후 발표된 경제지표 탓에 시장 영향력 적을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FOMC 회의 결정 배경 및 연준 위원들의 경기 진단 내용 파악 필요. 4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 부합 및 소매판매 부진에 금리 연내 2회 (9월) 인하 전망 높아졌으나, 매파적 입장 확인(연내 1회 인하 혹은 금리 동결 장기화 시사 등)될 경우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 재위축 가능</li> </ul>	<p>연 2회 금리인하 기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p>
<p>한국 금통위 회의 (5/23)</p> <p>★★★★☆</p>	<p>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 1분기 상향된 GDP, 높아진 환율 및 유가 변동성에 물가상승률 변동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적으로 물가 불확실성 확대에 금리 인하 명분 약화.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긴축 우려는 차단. 미국 금리 인하 시기 변경, 예상치 상회한 1분기 GDP 성장률, 변동성 커진 유가 및 환율 등 변화된 대내외 여건에 따른 금통위 대응 방향 확인 필요</li> </ul>	<p>변동성 커진 대내외 환경, 생각보다 좋았던 GDP에 금통위 방향성 변경 가능</p>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 별(★) 개수는 각 이벤트의 중요도 표시

## Compliance Notice

---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재원)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